| 불자 세상보기 |

말은 마음의 초상



법현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모범 보일 지도층 甲질 편승
최근 막말 구설 인사 많아져

거친 말은 성을 내서 하는 말
성내면 절대 '成佛'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법구경에선 "말의 악업 버리고
말로서 선업을 쌓으라"고 했다
연꽃 향내나는 말을 하며 살자

날도 덥고 경기도 좋지 않다. 탄핵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은 골이 패였다. 남북관계가 매우 사나우며 사드다, 반핵이다 해서 매우 복잡한 요즘이다.

이런 때에는 더운 날 산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들이키는 시원한 냉수가 몸에 좋다. 마음에는 귀를 통해 들려오는 음악소리와도 같은 고운 말 속에 조촐하고도 사이를 이어주는 바른 말이 들리면 비단옷에 꽃을 꽂은 격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바라는 대로 가지는 않는다. 이곳저곳에서 삶이 퍽퍽하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니 삶이 퍽퍽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말을 해서 그 말들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나 옮겨 들은 사람들의 삶을 더 퍽퍽하게 하고 있다. 사장님들과 아름다워야 할 여인들까지 난리다. 가뜩이나 힘든데 말이다.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우리가 짓는 업은 마음으로 셋, 몸으로 셋인데 입으로는 넷이나 된다고 한다. 그만큼 입으로 하는 말의 중요성을 일러주신 것이다. 나머지 셋은 옆으로 두고 거친 말 즉 욕설에 관해 살펴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한다.

추악한 말을 버리고 추악한 말을 삼간다. 부드럽고 귀에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와 닿고, 점잖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쾌한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신분과 지위 또는 관계의 윗자리에 선 사람들이 거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냄은 가장 나쁜 것이다. 거친 말은 성을 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나쁘다. 성내는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행복을 이룰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말이다. 부처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산속에서나 종교단체에서나 쓰이는 말이고 고리타분하며 손해 보기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남에게 잘 해주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명예나 지위와 경제적 이익형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성내서 나쁜 말을 하면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한 것이며 그 때 눈이나 몸으로도 나쁜 행위를 하면 좋지 않은 것들이 세 쌍이나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말의 성냄을 다스려라. 말을 절제하라. 말의 악업을 버리고 말로서 선업을 쌓으라(〈법구경〉)"고 하신다.

사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하지만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도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태운다. 모든 뭇삶(衆生)들의 불행은 입에서 생긴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법구경〉)"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거센 불길은 한 세계, 재물만을 태울 뿐이지만 말의 업은 한량 없는 세계, 성재를 태운다(〈보은경〉)"고 한다.

"제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쁜 별명을 지어 비웃고 욕해서 있던 사람은 떠나고 올 사람은 오지 않았다(〈악구형명경〉)"고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오는 거친말의 불이익이다. "고운 말,부드러운 말을 해야 내가 이익이다. 거친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하기를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하라(〈법구경〉)"고 했다.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고운 말의 향기를 넘치게 하여 다른 이도 즐겁게 하고 나 스스로도 기쁘고 이익이 되는 삶을 살자. 살고 있는 누리를 향내 나는 연꽃 밭이 되도록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자.

社說

태고종 새로운 도약 계기되길

폭력사태까지 불거졌던 태고종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임 총무원장 선출 이후 종단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었다.

태고종은 8월 2일 춘천 베어스호텔 소양홀에서 '태고종 종단발전과 종도화합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 참가자들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시도교구종무원장 29명과 선암사 · 봉원사 · 백련사 · 청련사 · 법륜사 주지 5명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 인사추천위원들은 차기 집행부 인사를 3배수로 오는 8월 15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제26대 총무원장 당선자인 편백운 스님은 선거 당시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서의 태고종 위상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종단 부채 해결을 중심에 두고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밖에도 △기초교육제도 개혁 △권역별 지방 초심원 설치 △사설사찰 보장 △독자적인 대외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선자의 리더십은 필수이다. 그 리더십은 조직 인선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선인은 교구 종무원장들과 조직 인선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좋은 총무원장의 요소는 자기가 일을 잘 하기보다는 좋은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는 편백운 스님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십과 더불어 종도들의 원력 동참도 필요하다. 그간 내홍으로 몸살을 앓은 태고종이 변화를 위해서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현재 태고종은 변화의 시험대에 올랐다. 첫 가늠자는 신임 총무원장 집행부 인선이 될 것이다.

청년회 네트워크, 흩어진 佛心 잡아라

창립 100주년을 3년 앞둔 대한불교청년회가 올 하반기부터 사찰청년회 간 네트워크를 조직해 미래 불자 결집에 나선다. 최근 불교계 화두로 떠오른 '미래세대 포교'에 발맞춘 적극적인 행보에 지지를 보낸다.

대불청 미래세대위원회가 이 같은 사업계획을 세운 데는 최근 급격한 불자감소를 비롯해 불자의 고령화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실감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대불청 구성원 대부분이 과거의 청년들이라는 뼈아픈 내부진단도 있었다. 역사를 간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 또한 미래세대 없이는 이어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명 청년불자는 타종교의 젊은 세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적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진 청년불자들이 또래와의 교류를 원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통한 불교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불교계는 이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등한시한 업보를 받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현장에서 청년회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불자들은 불교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불교를 알아가야 할지 막막해한다고 전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이미 오랫동안 제기돼왔고, 이제라도 실천에 옮겨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기에 대불청의 행보는 여느 단체의 활동보다 값지다. 게다가 미래세대위원회는 대불청에 종속된 기구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며, 20~30대 청년들이 이끌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부디 대불청이 신행 · 포교단체로서 흩어진 청년불심을 한 데 모으는 마중물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삶은 운명 아닌 因緣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7월말, 중국 절강(浙江)대학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13년 만에 항저우를 다시 찾았다. 그런데 중국에 가기 일주일 전에는 유럽으로 2주간의 출장이 있었고, 돌아와서 여독을 풀 여유는커녕, 내 게으름으로 인해 마무리하지 못한 학회 발표 논문을 손질하느라 쉬지 못했다.

그렇게 학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자 한 달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옴을 느꼈다. 나는 다음날 늦게까지 잠에 취해있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학회가 '항저우'에서 열린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리운 이를 찾듯이 꼭 들러야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곳이 있었다. 결국 다음날 늦잠을 자겠다는 다짐은 버리고 호텔과 그리 멀지 않은 영은사(靈隱寺)로 향했다.

중국 선종 10대 사찰 중 하나인 영은사는 천년고찰답게 입구부터 시대를 달리하는 많은 불상들이 석벽에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긴 역사보다 내겐 처음으로 영은사를 찾았던 13년 전 기억이 더 소중한 '역사'로 자리 잡고 있다.

금강대학교 신입생 시절, 학교에서 상하이~항저우 일대로 신입생 수련회를 보내주었기에 영은사에 와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서른이 넘은 '늙은 신입생'인 내게는 스무 살의 동기들처럼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설렘이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내 선택에 대해, 나이를 먹으면서 짊어져야만 하는 의무로부터의 도피라는 주위의 질타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여행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복잡한 심경 탓인지 대웅보전에 모셔진 20m가 넘는 풍채 좋은 부처님을 뵙고는 가장 원초적인 '기복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선택이 잘못된 길이 되지 않게 해달라며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시작된 서른 살의 대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불교학을 알게 되고 불교학과로 전과하면서 불안했던 마음은 안정을 얻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 여러 고마운 인연들을 만나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불교학은 그렇게 내 업이 되었다.

유학시절, 같은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함께 공부한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가 절강대학의 강단에 서게 되었고, 이번 학회는 그녀의 초정으로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인연은 다시 나를 항저우로 오게 하였기에 영은사를 꼭 찾아가고 싶었다. '불교학'의 인연은 상상도 못했던 그때의 내 모습과 '불교학회' 때문에 항저우를 다시 찾게 된 묘한 삶의 인연이 왠지 영은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었다.

대웅보전에 들어서서 13년 만에 뵙는 부처님께 합장 드리며 여쭤보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우울한 마음으로 소원 빌던, 수많은 관광객 중 한 명이던 나의 미래를 알고 계셨었는지…. 물론 부처님께서는 삶에 대한 운명론도, 숙명론도, 그리고 신의 의지도 단호히 거부하셨다. 인생은 그저 자신이 심은 행위의 씨앗이 싹을 터가며 만나는 여러 상호 작용들의 흐름일 뿐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심을 인생의 씨앗들은 1년 뒤, 10년 뒤 또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갈 것이다. 가는 곳을 알 수 없다 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무명(無明)의 씨앗은 고통으로, 지혜의 씨앗은 즐거움으로 데려가리니, 늘 지혜를 탐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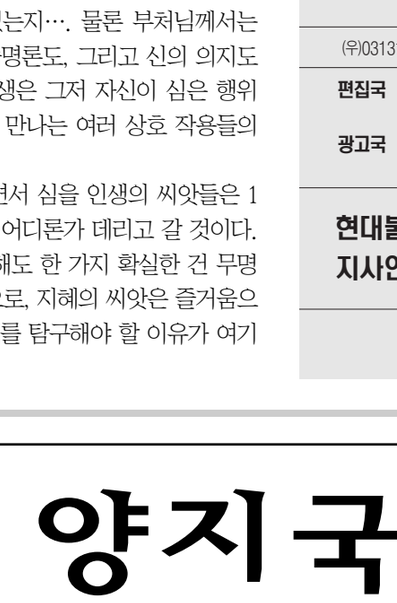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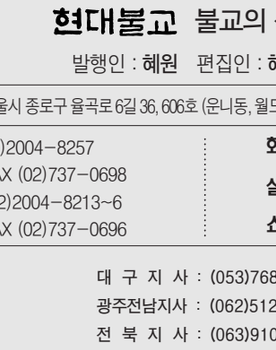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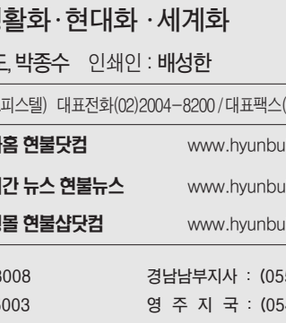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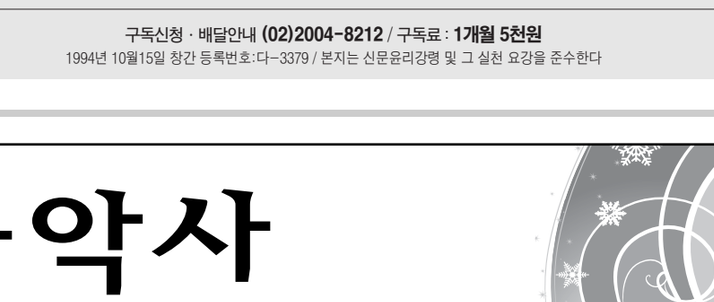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